

# 지스트, 전임교원 1인당 연구비 수주액 연 7억 원 돌파

- 외부 연구비 총 수주액 사상 최대 1,400억 원대 기록
- 코로나19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기관 본연의 연구임무 수행에 집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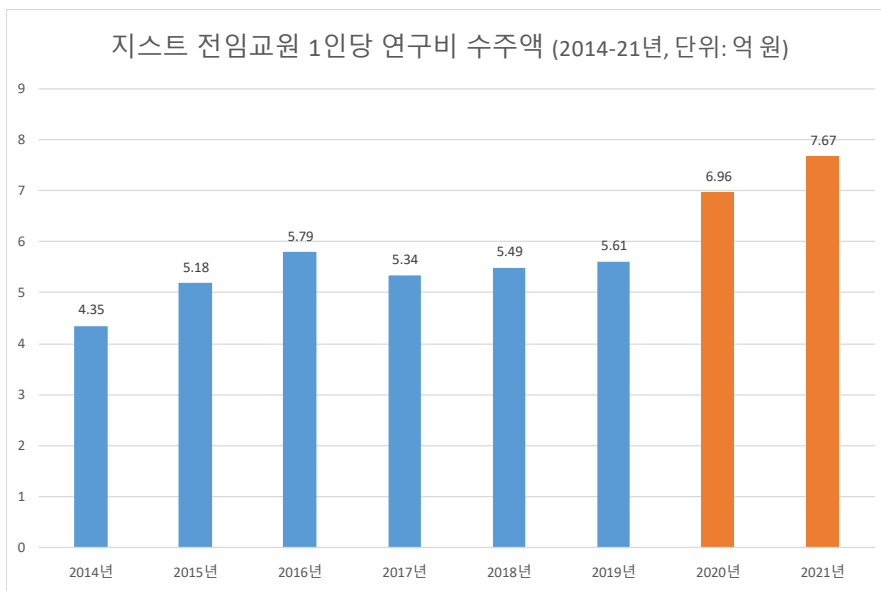
▲ 지스트는 국가와 지역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에 몰두하고 있다.

지스트(광주과학기술원, 총장 김기선)는 연간 협약 내역을 집계한 결과, 2021년도 외부 연구비 수주액이 사상 최대 규모인 1,424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집계 결과에 따르면 2021년도 교원 1인당 연구비 수주액은 7억 원을 넘어서 7억 6천만 원에 이르렀는데 이는 국내 대학을 통틀어 독보적인 성과라 할 수 있다.

연구과제를 수탁한 후 이를 다른 기관에 위탁하거나 협동연구로 진행하는 비용을 제외한 순수 연구비 또한 외부 연구비 수주액의 85.7%인 1,220억 원 규모로서 자체 연구력 또한 입증했다는 평가다.

특히 설립 28주년을 맞이한 젊은 지스트의 성과를 집약적으로 보여 주는 전임교원 1인당 연구비 수주액 규모는 2014년의 4억 3천만 원과 비교해 7년 만에 2배 가까이 도달한 것이다.

개원 후 국내 정상급 수준을 유지해 온 지스트의 전임교원 1인당 연구비 수주액은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 사태가 시작된 2020년에도 전년도 약 5억 6천만 원과 비교해 24% 상승한 6억 9천만 원에 이르렀는데 이에 그치지 않고 올해 연이어 대폭 상승한 것이다.



▲ 8년간 지스트 전임교원 1인당 연구비 수주액 그래프

지스트의 연구비 수주액 규모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최고치를 경신한 데 대하여 김기선 총장은 “인류·국가·지역의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한다는 목표를 갖고 학제나 분야 사이의 경계를 넘나드는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연구에 지스트 구성원 모두가 관심을 기울이고 응원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올해 협약을 맺은 ▲‘레이저 대즐링 능동방어 기술 개발’(고등광기술연구소 성재희 수석연구원) ▲‘도시형 생활폐기물 가스화 물질 혁신적 전환 선도연구센터’(지구·환경공학부 장인섭 교수) ▲‘광주첨단 스마트제조 고급인력 양성사업’(기계공학부 이종호 교수) ▲‘화합물반도체 기반 광융합 소자 나노인프라 구축’(전기전자컴퓨터공학부 이동선 교수) 등 총 협약액 10억 원 이상의 신규 외부 연구과제 중에는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는 주제가 다수 눈에 띈다.

전임교원 200명, 재학생 2,000명 규모의 작지만 강한 연구 중심 대학인 지스트는 2019년 김기선 총장 취임 이후 교육과 연구의 양대 부문에서 융합과 혁신에 주력하고 있다. 지난 6월 영국의 대학평가기관 QS가 발표한 2022 세계대학평가에서 각 대학의 연구 역량을 양과 질, 모두 평가할 수 있는 항목으로 꼽히는 ‘교원 1인당 논문 피인용 수(Citations per Faculty)’ 부문 세계 4위에 오르기도 했다.